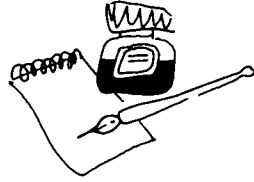


편집 후기



세모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번쯤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며 되이게 되는 말이 있다. 다사다난.

보험시장 개방압력과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된 85년 이야말로 보험업계로서는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강대국의 국력을 앞세운 오만한 「압력」처럼 불쾌하고 노여운 것은 다시 없다.

좋은 상품, 빈틈없는 고객관리로 우리시장을 온전히 지켜 시장개방을 소리높여 외친 그들의 높은 콧대를 보기 좋게 눌러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고보면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관리와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지난 한해동안 값진 글을 주신 모든 집필자와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아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

언제부터인지 나는 「百聞이不如一見」이라는 말보다 좀더 내 생각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百見이不如一行」이라는 말을 만들어 곧잘 내 주위 동료들에게 써먹곤 한다.

맛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뜻인즉 “백번 보는 것이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하다”는 나 나름대로의 自求의 해석이다.

위낙 무재주인 탓도 있겠지만 찝막한 글 두어 페이지 쓰는데도 십에까지 싸들고 가서 몇날 몇밤을 헤매야 되니, 이 책 한권이 완성되기까지의 노고는 불어 무엇할까?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崔>

세모가 되면 누구나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고 아쉬움과 반성과 보람의 감회를 느끼게 된다.

올해는 유별나게 그러한 감상에 젖게 된다.

사면을 둘러봐야 창문밖으로는 높게 솟은 건물들이 제각기 뿔뿔 뿐이다.

85년을 마무리 지으며 이 한해동안 독자 여러분들이 「방재와 보험」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새삼

감사를 드린다.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이같은 성원에 대해 걸맞는 잡지를 만들어 냈는지 두려운 생각도 든다. 새해에는 새로운 기획과 보다 알찬 내용으로 독자여러분을 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鄭>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5 / 겨울호 계간/비 매 품 <통권제 28 호>

등록 / 마-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6년 1월 1일
인쇄 / 1985년 12월 31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